

삼성바이오로직스, 927억 수주... “선제투자로 경쟁력 강화”

글로벌 제약사 MSD와 계약 체결 4공장, 단일 공장 세계 최대 규모 2025년 4월 가동 목표 5공장 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도 글로벌 제약사와 잇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13일 국내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스위스 법인과 927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3.0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계약 제품은 비공개다. 계약 기간은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203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의에 따라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지난 6일에는 올해 첫 계약으로 벨기에 제약사 유씨비(UCB)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의 규모는 3819억원으로 지난 2017년 동사와 체결한 4165만 달러(451억원) 규모의 계약에 대한 증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액 계약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씨비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파트너십을 지속해 왔다. 유씨비는 블록버스터 치료제 ‘빔’을 비롯해 소아나 청소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뇌전증 치료제 5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상위 제약사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창립

이래 최소 구매 물량 기준 누적 수주 금액은 120억2700만 달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이 중 60억9500만 달러 규모를 납품했다. 오는 2033년까지 수주 잔고는 59억3200만 달러다. 기존 수주 계약만으로 현재 8조원에 달하는 매출이 확보된 것이다.

최대 물량 기준으로는 총 123억5500만 달러 규모의 수주액이 남아 있다. 이는 약 16조3000억원으로, 현재 수주 잔고의 2배를 넘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세계 최대 생산능력, 스피드 경쟁력,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품질 등을 바탕으로 고객사와 신뢰를 쌓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주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은 2023년 6월 전체 가동에 돌입했다. 해당 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24만 리터의 규모를 갖췄다. 이에 따라 총 생산능력은 60만4000리터에 이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장도 건설 중이다. 오는 2025년 9월 가동 목표에서 5개월 앞당긴 20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변경했다. 압도적인 스피드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5공장은 18만 리터 규모로 완공 시 총 생산능력은 78만4000리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상원 국토안보 위원회는 최근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

사다.

미국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에 발의된 법안이다.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바이오 산업 시장에서 미국이 지명한 특정 기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이처럼 미국이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기업 견제에 나서면 국내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30만 리터 이상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경쟁사로는 스위스 론자, 독일 베링거 잉겔하임 등이 있다. 또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일본 후지 필름 다이오신스도 생산용량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대웅제약, 日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

큐텐서 ‘에너지셀 퍼펙트샷’ 선배 비타민B군 8종 최적 섭취량 함유

대웅제약이 일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2월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인 ‘큐텐’에 프리미엄 비타민 ‘에너지셀 퍼펙트샷’을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에너지셀 퍼펙트샷은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사업부의 기획력과 연구개발 센터의 기술력을 집약한 고급 건강기능식품이다. 비타민 B군 8종을 최적 섭취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간 피로를 개선

해 활력을 높여주는 밀크씨슬 성분을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 130mg까지 짝 채운 것도 특징이다.

에너지셀 퍼펙트샷 제품군에는 ‘에너지셀 퍼펙트샷 이문플러스’와 ‘에너지셀 퍼펙트샷 콜레다운’이 있다.

에너지셀 퍼펙트샷 이문플러스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경천 추출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항산화 효과를 갖춘 비타민C, 갈슘과 인 흡수를 돕는 비타민D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셀 퍼펙트샷 콜레다운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국추출물’을 더한 제품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일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제품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야노경제연구소는 일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속 성장해 지난 2023년에만 약 8조원 규모로 커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소비자들은 드럭스토어, 약국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일본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구매 유형에 맞춰 일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롯데리조트, 새 멤버십 ‘시그니처 L’ 출시

다양한 혜택 누릴 수 있는 분양회원권

롯데리조트는 더욱 강력한 입회 혜택을 담은 새로운 멤버십 ‘시그니처 L’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그니처 L은 롯데리조트의 객실과 부대시설은 물론 롯데호텔앤리조트 체인 호텔들과 롯데그룹 계열사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양회원권으로 롯데리조트 속초·부여 통합 회원권과 제주 아트빌라스 회원권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객실 평형에 따라 스탠다드, 스위트, 루미너스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통합회원권은 전 유형에서 롯데리조트 속초·부여 리조트동 객실의 연 30박 지정요금 사용이 공통으로 가능하다.

제주 아트빌라스 회원권은 아트빌라



롯데리조트, 강력한 혜택의 분양 회원권 ‘시그니처 L’ 신규 출시. /롯데호텔앤리조트

스뿐만 아니라 롯데리조트 속초·부여 리조트동까지 회원요금으로 연 36박을 예약할 수 있다.

시그니처 L은 호텔 이용 특전과 연계 멤버십 혜택도 커졌다. 회원권 종류에 따라 4박~10박까지 롯데호텔앤리조트 체인 소속 호텔 이용 시 특별요금 특전이 제공된다(일부 해외 호텔 포함, 제공 호텔 범위는 상이). /최빛나 기자 vitna@

일동제약 ‘지큐랩’ 광고모델 배우 전지현 발탁

일동제약이 새로운 브랜드 모델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 강화에 나선다.

일동제약은 자사의 포스트바이오틱스 브랜드 ‘지큐랩’ 광고 모델로 배우 전지현을 발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전지현이 가진 독보적인 존재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 등이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은 오는 4월부터 ‘지큐랩 장건강 포스트 솔루션’을 비롯한 ‘지큐랩 시리즈’ 광고에서 전지현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큐랩 장건강 포스트 솔루션’은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피부관리 미용기기 사업 확장

제이에스케이와 전략 협약 ‘마데카더마 파인올샷’ 출시

동국제약이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위한 미용기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동국제약은 제이에스케이와의 전략적 협약을 통해 ‘마데카더마 파인올샷’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마데카더마 파인올샷’은 동국제약의 피부 과학 전문성과 집중 초음파 기술을 활용한 전문가용 피부 미용 기기다. 저통증 초음파 기술을 통해 피부 자극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은 ‘마데카더마 에스테클리닉’ 스킨케어 제품도 출시한다. 동국제약의 핵심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유형별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

동국제약은 지난 2월 29일 대구에서



‘마데카더마 파인올샷’ /동국제약

뷰티샵과 피부관리실을 대상으로 ‘마데카더마 파인올샷’과 ‘마데카더마 에스테클리닉’ 스킨케어 9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바이오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CDP 주최... 전년비 한 단계 상승

SK바이오팜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경영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지속 가능 경영 평가 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주최한 ‘2023 CDP 코리아 어워즈’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산림 자원 등 환경 관련 경영 수준을 분석해 우수 기업을 수상하고 있다.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상은 CDP 평가에서 해당 분야 상위 등급을 달성한 기업에 주어

진다.

이번 평가에서 SK바이오팜은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아 제약·건강분야 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SK바이오팜은 환경 관리를 기반으로 한 경영 체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SK바이오팜은 ‘204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사용량 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 영향 최소화, 주기적인 환경 법규 준수 여부 감사 등도 지속 수행한다. 국내 전 사업장에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인 ‘ISO 14001’도 취득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